

SK, 2006년 윤리경영 강화

합법성 · 합리성 · 투명성 3대 원칙 ... 의무 · 사례 중심 실천지침도

SK는 2006년부터 윤리경영을 대폭 강화한다고 12월29일 밝혔다.

이를 위해 2006년 1월1일부터 기존 임직원 윤리강령과 윤리강령 준수절차를 윤리규범 및 윤리규범실천지침으로 개정해 선포하고 관련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.

윤리규범은 구성원, 고객, 주주, 사업파트너, 사회 등 각 분야에서 지켜야할 의무사항으로 규정돼 있고 구체적인 사례 중심의 실천지침이 수반된다. 또 구성원의 행동원칙으로 합법성, 합리성, 투명성의 3대 원칙을 설정했다.

SK는 윤리규범 및 실천지침 마련을 위해 2005년 봄부터 국내외 31사에 대한 사례분석 작업을 진행해왔다. 이와 함께 상담 및 제보 강화를 위해 윤리상담실을 설치하고, 윤리경영 홈페이지(ethics.skcorp.com)를 개설해 온라인상에서도 언제든지 상담 및 제보가 가능토록 했다.

윤리상담실 및 홈페이지는 제보 창구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전문 상담제도를 통해 윤리경영에 부합하거나 위배되는 사안을 설명해주는 기능도 갖추었다.

SK는 윤리경영 정착을 위해 2006년 온오프라인 교육 및 다양한 구성원 참여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.

신현철 SK 사장은 “모든 구성원들이 윤리규범 및 실천지침 이해와 준수를 통해 경영활동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행할 것”이라고 강조했다. (서울=연합뉴스 김범수 기자) <저작권(c)연합뉴스-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5/12/30>